

환절기 치아건강에 주의하세요

입력 : 2009-03-11 00:00 | 수정 : 2009-03-11 00:00

환절기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감기를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감기증세가 악화되면 유독 잇몸통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평소 잇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감기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잇몸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감기 증세가 호전되면서 잇몸의 통증이 사라졌어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은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다음번엔 잇몸이 주저앉아 아예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아의 마모가 심하거나 치아파절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환절기에 부는 찬바람과 아침저녁의 온도차이로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절기엔 치과를 방문하여 문제점 있는 치아를 조기에 치료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아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치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전하며 "평소 잇몸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은 최소 연 1회, 흡연자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